

여수시관광협의회,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이끈다

‘친절 아카데미’ 350여명 참석 상황
다시 찾고 싶은 여수 만들기 앞장
공공·민간 전문가 50여명 적극 활동
서울~여수 KTX 2시간 단축 논의 등
관광 활성화 위한 정책 마련 힘써

여수시관광협의회가 국내대표 해양휴양관광도시 여수의 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여수시관광협의회는 세계관광의 날(9월 27일)을 맞아 디오션호텔에서 ‘여수관광 친절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포럼과 실질적인 정책 등을 주관해 온 여수시관광협의회는 지난 2017년 11월 여수시와 여수상의, 여수세계박람회 재단 등 공공부문과 관광협회, 여수관광발전협의회, 관광업계 관계자 등 민간부문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해 창립했다.

지속가능 관광을 위해 마련된 이번 아카데미에는 지역 음식·숙박·관광 업체 관계자와 사회단체 회원, 일반 시민 등 3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장은 ‘NO바가지! YES 친절’, ‘웃음에 반해요! 여수에 반해요!’, ‘더 친절하게~ 더 정직하게’, ‘친절한 여수! 다시 찾고 싶은 여수!’ 라는 참석자들의 구호로 가득했다.

이어 이수민 (SM스피치아카데미) 대표의 ‘당신의

가치를 친절로 승부하라’는 주제 강연에서는 2019 소비트렌드와 서비스 대화법, 바른인사·밝은미소·차분한 말투 등 5대 실천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창주 여수시관광협의회 회장은 “여수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한 만큼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여수를 찾을 수 있도록 손님맞이에 힘쓰자”고 강조했다.

여수시관광협의회는 그동안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도 힘써왔다.

특히 지난 4월 여수상공회의소와 공동 주최한 ‘지속 가능한 여수관광 발전 세미나’에서는 서울~여수간 KTX 2시간 내로 단축 등 지역관광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 숙원사업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최창호 전남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 기준 KTX 3시간, 승용차 5시간 소요 거리는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광 수요 창출의 큰 걸림돌 일 수밖에 없다”며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에 전라선 KTX 속도 개선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선화와 KTX 전용선 신설 등 고속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특히 올 하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경전선 개량 사업과 연계해 여수-광주간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서울-여수 간도 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여수관광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와 여수 관광의 미래를 밝게 했다.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과 관광객 증가 효과를 등



지난 달 27일 열린 여수시관광협의회 '여수관광 친절 아카데미'에서 참석자들이 '웃음에 반해요! 여수에 반해요!' 등의 구호가 적인 홍보물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여수시관광협의회 제공>

시에 거둘 수 있도록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여수 밤바다 중심의 문화콘텐츠 개발과 함께 관광산업 확대, 수도권 접근성 향상, 환대서비스, 다양한 축제 및 체험행사 등 여수시와 지역민이 함께 만들어 갈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아카데미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포럼 등 전문적인 관광협

의회 프로그램을 통해 수준 높은 관광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수관광협의회가 지역관광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과 지원으로 시민중심의 관광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해경 신청사 건립 위해 전남대 국동 캠퍼스로 임시 이전

여수해양경찰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전남대학교 여수국동 캠퍼스로 임시청사를 이전해 2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임시청사 이전은 신청사 건립에 따른 것으로 전남대학교 여수국동캠퍼스 교양관 건물을 사용한다.

여수 해경은 지난 7월부터 3개월에 걸쳐 임시청사 구조변경 공사를 마쳤다.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부서별 사무실 이전을 마무리하고 21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해경은 업무 공백과 민원불편을 없애기 위해 여수 신월 출장소에 임시 상황실 설치와 함께 위기대응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전 기간에도 구청사와 임시청사에서도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현재의 청사는 철거한 후 총사업비 1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할 예정이다.

새건물은 전체 8361㎡(2530평) 부지에 건축면적 6779㎡(2054평)으로 신축된다. 지상 5층 규모로 2021년 4월에 완공될 계획이다.

이철우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업무 공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 연속성 유지와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 해경은 1963년 7월 내무부 소속 해양경찰대 여수기지로 발족해 현재의 여수엑스포공원 자리인 수정동 일원에 청사가 있었다. 이후 1988년 여수동 청사로 옮겨 31년간 전남 동부해역의 해양치안 및 안전관리 업무를 해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상포지구비대위, 여수시 상대 피해보상 소송 준비

여수시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상포지구비대위)가 시를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기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상포지구비대위는 지난 7월 보도 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준공 절차상 부당한 행정처리의 문제점들이 확인됐다”며 “위법과 불법이 자행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담당 공무원의 징계가 미흡하고 형사적인 처벌이 제외돼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 상포지구 전경.

상포지구비대위는 여수시를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당시 행정의 책임자였던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담당 공무원 3명도 공동정범으로 고소할 계획이다.

여수시 불산을 우두리 상포지구는 삼부토권이 1986년 12만5400㎡를 매입한 뒤 1994년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배수시설과 도로 등을 만들지 못해 20여년간 사

업이 중단됐다 2015년 개발업체 Y사가 용지를 매입했고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잡음이 불거졌다.

특히 Y사 대표인 김모(48)씨가 주 전 시장의 5촌 조카사위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감사원은 여수시장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을 징계(정직)하라고 요구하고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서시장 주변시장서 10~18일 가을축제 개최



10일부터 18일까지 여수 서시장 주변시장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을 축제가 열린다.

여수시는 10일부터 18일까지 서시장 주변시장에서 가을 축제가 열린다고 8일 밝혔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는 서시장 주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과 서시장 주변시장 상인회가 주관한다.

10일 오전 9시 30분 지역 유치원생 50여명은 그림그리기 대회와 장보기 체험으로 축제가 시작된다. 11일과 12일, 15일은 서시장 주변시장 남문에서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18일 오후 3시부터는 김홍익, 공소원, 위경애퍼트 유 등 가수 공연한

다.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7일과 18일 남문에서 경품 이벤트가 진행된다.

서시장 주변시장에서 물품 5만원 이상을 구매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전통시장 상품권 1만원권과 텀블러, 장바구니 중 1개를 받을 수 있다.

‘여수전통서시장 스탬프’ 어플을 통해 여수 관광지 또는 서시장 먹거리 인증사진을 올리면 선착순 350명에게 전통시장 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하는 행사도 열린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2019 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린 자전거축제

11월 3일(일) 영산강 일원

장 소 영산강자전거안내센터(극락교)

종 목 자전거대행진

참가비 전 종목 무료

접 수 062-376-3112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광주본부)

1. **자전거대행진 '사랑코스'** (비경쟁 퍼레이드 45km)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극락교) → 서창교 → 승촌보 → 나주대교 → 빛가람대교 → 영산교 → 영산대교(유채광장/반환) → 영산교 → 빛가람대교 → 나주대교 → 승촌보 → 서창교 →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극락교)
▶제한시간: 오전 12시 40분까지(3시간)
2. **자전거대행진 '행복코스'** (비경쟁 퍼레이드 25km)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극락교) → 서창교 → 승촌보(반환) → 서창교 →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극락교)
▶제한시간: 오전 11시 10분까지(1시간 30분)
3. **신청**: 사전 전화접수
4. **참가자준비물**: 개인 안전장구, 자전거
5. **자전거대행진 당일안내** (11월 3일)
1) 참가자접수시간: 오전 9시까지(출발선 대기)
2) 장비점검(배변 등 부착물 체크): 오전 8시~9시
3) 출발시간: 오전 9시 40분

※ 신체 건강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기념품은 배번호를 부착한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주최측은 경기 중 발생한 부상, 사고 등에 대해 응급조치 및 보험 보상규정 한도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참가자는 반드시 본인의 건강상태(개인 지병, 혈압, 당뇨, 과로, 심장질환 등)를 고려하여 참가신청 및 개별 상해보험 가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최| **광주일보** ·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 |주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광주본부 |후원| **광주광역시**